일본 마찌나미 보존지구 타케토미마을(竹富島)의 경관활용실태에 관한 사례연구

- A Case Study on Actual Conditions of TAKETOMI Village Ladnsacpe on Machinami Conservational District in Japan -

정 건 채*
Chong, Geon-Chai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 conservational and practical using of traditional elements and actual conditions of Taketomi village design as specified Machinami Conservational District in far south Okinawa of Japanese Islands. It was comprised in main contents that this study surveyed historical and cultural elements, dwelling area and housing, and environmental elements designed by participation in Taketomi village people. It was surveyed on from July 5th to 6th in 2006.

As a results of this study, I could suggest a conclusions as follows; firstly, it was necessary for them to conceive historical and cultural elements as they designed traditional tourism village. Secondly, Machinami District of Taketomi village has a traditional identity that conserves landscapes of red roof house and coralline street by original form. Thirdly, the form and spatial organization of traditional house keep cultural heritage in Taketomi style. Lastly, they, by themselves, build a rules and ideas of green tourism for managements with experts and NPO.

키워드 : 타케토미 마을, 마찌나미보존지구, 전통문화, 경관디자인, 역사문화경관, 마을환경디자인, 운영관리.

Keywords : Taketomi Village, Machinami Conservational District, Tradition and Culture, Landscape Architectural Design, Historical and Cultural Landscape, Environment Design of Village, Management.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일본의 오키나와(沖繩)현 최남단에 위치한 타케토미마을(竹富島)은 최근, 출향했던 젊은이들이 마을로 U턴하여 돌아 오고, 주민참여로 형성된 그린투어리즘을 통하여 마을의 소득이 증가하는 등 활력을 찾고 있어 지역의 자산을 이용한 마을 만들기'의 좋은 사례로 알려지고 있다.

역사적으로 타케토미마을은 19세기말 메이지 12년, 오키나와현으로 설치될 때까지 약 450년 동안 류규(琉球) 왕국에 소속되었던 까닭에 독자적인 왕국내의 문화를 유지하여올 수 있었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원형 그대로의 마을모습과 주거지형태를 보존하여왔다. 이것을 마을만들기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핵심으로 삼아 마을의 전통적 경관요소인 역사문화경관, 주거경관 및 마을환경디자인 등을 재구성하게 되었고, 일본 전역의 도농교류적 관계에서 요구되는 고유한 전통적 관광마을로 그 가치를 재창출하였다. 현재, 타케토미마을은 낙도오지의 섬임에도 불구하고 마을주민들에게 농외소득창출과 역사문화적 자긍심을 갖게 함으로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교훈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마을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 요소들을 어떻게 살려서 마을의 고유한 경관을 유지하면서도 생산적 마을 만들기'를 시도하였는지에 중점을 두고 조사연구를 진행하였다. 마을의 역사와 문화', 주거와 민박', 주민참여 환경디자인' 및 마을의 운영 및 관리' 등을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일본 최남단의 아열대성 기후를 갖는 마찌나미(町並み) 보존지구인 타케토미마을의 경관보존실태와 활용 사례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실제 전통적 마을 만들기를 시도할 경우 하나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요소들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연구의 방법 및 내용, 대상

조사대상마을인 일본의 오키나와현 이시카키(石垣)섬 타케토미마을은 마을고유의 역사와 문화를 담아 도시민과 활발하게 교류하는 대표적인 전통테마마을 중의 하나이다. 마을의 전통적 요소를 활용하여 전통테마 관광마

*이사, 남서울대학교 건축학과 부교수, 공학박사
본 연구는 2008년 남서울대학교의 연구비 지원에 의한 연구결과의 일부임.

을로 마을만들기를 실행하고 있는 사례로 2006년 7월 5일~6일 동안 체험과 병행하여 연구조사 하였다. 그 연구의 방법과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조사 및 자료조사를 실시하였다. 일본의 傳統的建造物群 중 集體保存에 의한 역사적 건조물의 보존유형과 마찌나미 보존지구에 관한 문헌조사를 통하여 일본 전통테마마을 만들기의 사례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통마을경관의 보존과 활용'이라는 맥락에서 전통적 문화유산의 활용과 구축조건을 갖춘 마찌나미 보존지구인 타케토미마을을 선정, 체재와 답사형식으로 조사하였다[2].

둘째, 현지조사를 통하여 타케토미마을의 역사와 문화(유형적, 무형적), 경관디자인 요소로써 전통민가의 형태와 공간구성 및 건축물, 마을길, 역사적 장소, 마을환경디자인, 마을의 보전과 활용의 기준이 되는 마을경관규약(타케토미 마을헌장) 등의 주민참여 커뮤니티 디자인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였다.

셋째, 실태조사 시에는 마을의 촌장 및 주민과의 면담조사를 실시하였고, 사진촬영과 실측, 타케토미 비지터센터내 자료관방문조사 등 다각적인 조사방법을 병행하였다.

본 연구는 1박2일의 짧은 답사기간 동안 진행되었기 때문에 전통마을경관의 보존과 활용'에 국한된 조사의 한계성을 갖고 있다.

2. 전통테마마을-타케토미(竹富)마을에 관한 고찰

2.1 타케토미마을의 개요

<표1>은 타케토미마을의 개요를 3가지 현황으로 정리한 것이다. 지리적으로 볼 때 타케토미마을은 우리나라 제주도에서 직선거리로 남쪽으로 약 1,000km에 위치하고 있어 약 1,500km 떨어진 일본의 오사카보다도 가까우며 일본열도 중에서도 최남단의 섬 중 하나이다[3]. 타케토미마을은 일본 오키나와의 야에야마제도(八重山 諸島)에 속하는 작은 섬이다. 오키나와에서도 400km정도 떨어져 오히려 대만과 가까운 최남단 이시카키섬에서 니시오모테(表島)사이의 대산호초 지역에 위치한 거의 평탄한 섬으로 마치 뾰족한 원석과 같은 평면형상을 하고 있다.

아열대성의 기후를 갖고 있는 타케토미마을은 계절풍으로 고온다습한 기후와 태풍 및 호우가 잦은 곳으로 도서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갖고 있으며, 마을의 입지위치가 24라는 숫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북위 24㎒ , 동경 124㎒ , 표고 24m, 평균기온 24㎒ C, 연간강우량 2400mm 등의 자연적 위치를 나타내고 있고, 문화재적으로도 국가지정 24번째 重要傳統的建造物群保存地區이어서 마을의 숫자가 24로 이미지화된 마을이다.

과거 역사적 야에산(八重山) 지배의 거점이기도 하였던 타케토미마을은 2006년, 현재 351명이 살고 있다.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27.1%로 장수촌이며, 현재, 마을의 아동수가 증가하는 곳이다. 문화유산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으로 젊은이들이 귀향하여 정착하는 마을로도 유명하다. 일본 각처로부터 끊임없이 관광객들이 몰려오는 전통테마마을로 정착한 것이다.

표 1. 타케토미 마을의 개요

구 분	세 부 내 용
지리적 현 황	□위치-북위: 24도 15부, 동경: 124도 30부, 표고: 24m □평균온도-24°C, 연간강우량-2400mm, 아열대성 기후. □일본 최남단 이시카키(石壇)섬~니시오모테(表島)사이의 대산호초지역, 둘레 9.2km. □평탄한 섬, 고온다습, 태풍과 호우가 잦은 곳. □섬의 크기: 직경 세로 약3km,가로 약2km,둘레 약 9.2km. □과거 역사적 류큐(琉球)왕부에 의해 야에(八重)산지배의 거점.
인문적 현 황	□인구-351명(2006년 5월 현재), 166명(남) 185명(여)□세대수-156호□장수촌-65세 이상 95명(27.1%). □현내 유일한 마찌나미(町並み)보존지구: 오키나와의 원풍경이 남아있는 곳. 1977년, 24번째 重要傳統的建造物群保存地區로 지정됨. □1977년, 國家重要無形民俗文化財로 지정된 600년 역사의 種子取祭(たなどぅい): 타케토미(竹富)섬 최대의 축제.
관광적 현 황	□타케토미 비지터센터(유가후관) 및 민박 운영. □자연환경, 역사문화, 주거문화와의 관계로부터 만들어진 문화유산. □마을환경디자인으로 경관개선. □마을경관보전 및 활용, 마을경관체험프로그램제공.

2) 일본 重要傳統的建造物群保存地區의 보존 및 활용과 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조원석의 일본의 역사적 건조물 보존 계획에 관한 연구'(대한건축학회논문집, v.17 n.4, 2001.04, pp.85~88)를, 유형과 제도에 관하여 김란기의 전통마을 보존사업의 시행방법 연구'(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v.6 n.3, 2004.10)를, 문화유산의 활용과 구축에 관하여 池ノ眞一, 外1人, 文化遺産の マネジメンシステムの 構築條件'(日本建築學會計劃系論文集 第612號, 2007)을 참조하였다. 또한 최근 10년간 국내학회지(대한건축학회, 한국농촌건축학회)에 나타난 농촌마을관련 연구동향을 파악하여 본 연구의 특징과 비교하여보았다. 본 연구는 전통마을경관의 보존과 활용'에 관한 분야로, 체험적 사례조사방법을 취하고 있다.

연구분야	연구논문건수	비 고(대상)
마을의 공간구조	23	
보존과 활용	5	영국1,일본2,국내2건
마을계획과 지역활성화	12	
경관구조(계획)	10	
마을만들기	15	
마을의 주거	23	
계	88	-

3) 1500년전 류규왕국시대 때 중국과 교류하였으나 민간과 교류할 수 없게 하기 위해 류규왕국에 귀속시켰고, 이에 맞서 류규왕국에 도전하였던 적이 있는데 그 장본인이 한국의 홍길동이라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으나 연대적 차이가 나고 있다. 실제, 1477년 제주도의 민간이 표류하여 이곳에 1년간 거주한 사실이 알려지고 있다(촌장과 인터뷰 중).

현재, 600년 역사의 종자취제(種子取祭)를 계승 발전시켜오고 있으며[4], 오키나와의 원 풍경이 남아있는 곳으로 1977년 마찌나미 보존지구로 지정되면서 더욱 마을의 활력을 되찾고 있다. 마을의 고유한 경관과 문화유산을 보전하기 위한 방법으로 마을헌장을 제정하는 등 마을관광과 연계한 고유한 문화유산을 생활환경과 함께 체계적으로 발굴해나가고 있다. 마을의 공민관 및 NPO단 등의 외부지원을 받아 주민참여로 마을을 보전과 관리해나가는 것도 특징 중의 하나이다.

한편, 방문객이 쉽게 마을을 이해하며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타케토미마을 비지터센터(竹富島ゆがふ館)를 설치하여 동영상, 자료열람, 전시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방문객이 마을에 체재하면서 관광할 수 있도록 민박집을 운영한다. 마을의 주요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자연환경, 역사문화, 주거문화와의 관계로부터 만들어진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체험케 하므로 고유한 마을의 전통적 문화유산을 느끼게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즉, 마을경관의 보전과 활용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볼 수 있다.

2.2 타케토미 마을의 역사와 문화

역사적으로 타케토미마을은 玻座間村, 間原村, 仲筋村, 花城村, 率本村, 波利若村 등 6개의 부족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한다[5]. 역사적 사상을 근거로 마을의 형성과정을 보면 제1기는 12C후반에 마을이 성립되어 16C초반까지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제2기는 류큐왕부치하기로 1524년부터 20C초기로 보고 있고, 제3기는 20C초에서 1970년 초까지로 전통의 성숙기라 부르고 있다. 그리고 제4기는 가치의 현대화기로 본토복귀전후에서 현재까지의 단계로 그 형성기를 4단계로 구분하고 있다[6].

타케토미마을의 문화유산은 유□무형문화재가 공존하고 있다. 공히, 전통문화 그대로를 유지시켜 온 것으로 첫째, 1977년 國家重要無形民俗文化財로 지정된 타나두이(種子取祭)축제가 있다. 600년의 역사 동안 전수되어지고 있는 축제는 거주를 통한 지혜로 만들어진 문화유산으로 과거 농경문화와 토속신앙을 반영하고 있다. 둘째, 전국적으로 24번째로 지정된 유형문화재로 重要傳統的建造物群 保存地區인 마을이다. 소위 우타키(御嶽)라는 신역제도 및 자연환경과 생활환경과의 관계로부터 만들어진 문화유산으로 마을의 동심으로 배치되어진 마을형상과 가옥구조 및 민가의 재질 등이 마을의 고유한 경관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마을의 역사와 문화를 나타내주는 가장 중요한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2.3 마을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과 문제점

<표2>는 마을을 보존하기 위한 몇 가지 주민노력의 내용들을 담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본의 최남단 오지낙도에 위치한 타케토미마을에도 현대문명의 영향권 하에 있다. 디지털 매스미디어의 활용과 20분마다 출항하는 카페리운항, 전기사용 등 공간적 거리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으로 도시와 공존하고 있어 소통과 접근의 어려움은 없다.

표 2. 마을을 보존하기 위한 주민노력

보전을 위한 주민합의 사항	세부내용
다리를 놓지 않음.	도시와 직접 자동차로 교류하면 섬의 오염이 쉽게 된다는 점과 타케토미 마을의 종족을 보존하고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유지하기 위함을 고려함.
마을의 토지 관리방법을 주민규약으로 정함.	토지를 도시사람에게 팔지 않기 위함, 만일 팔 경우가 발생하면 공동으로 자금화 함.
마쓰나미(町竝み) 보존지구 지정함.	1977년 지정됨. 오키나와현내 유일하며, 원풍경을 유지.
마을의 전통주택 및 마을길을 본래대로 복원하고, 마을의 전통적 경관요소를 활용하여 관광자원화 함.	옛 기와의 재활용으로 아름다운 마을경관 만들기, 백색의 모래를 깔은 마을길 만들기, 도로양편으로 석담 만들기 및 4계절을 느낄 수 있는 화단 만들기 등.
산호초 층을 어떻게 보호하느냐가 중요. 마을과 생명보호로 교육함[7].	산호초가 스펀지와 같이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큰 피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됨. 따라서 마을의 형성도 바닷가 주변이 아니라 섬의 중앙으로 집중시켜 자연재해에 대응한 지혜로 여김.
죽부정민헌장 제정함[8].	죽부정민(町民)으로서의 긍지를 갖도록 합심하여 풍요로운 마을 만들기의 소원을 담아 제정함.

즉, 도시문명이 자연스럽게 마을로 스며들 수 있는 기회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마을의 전통요소들을 보존하기 위하여 주민 스스로 다각적인 노력을 벌여오고 있다. 마을을 전통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노력의 이면에는 4면 전체가 바다로 둘려진 섬이기 때문에 도시로의 접근성과 생활편익시설의 열악함이라든가, 고령 장수마을이라는 나름대로의 마을을 유지하기 위한 문제점들이 적지 않다. 이러한 조건들을 주민이 협력하여 극복해나가

4) 1977년에 國家重要無形民俗文化財로 지정받음(八重山每日新聞, 2004年 10月 8日, 4面).

5) 타케토미(竹富)라는 명칭은 이 섬에 처음으로 건너왔다는 추장의 이름인 다가니둔(他金殿) □ 타키네도노(タキネトノ) □ 타키도노(タキトノ) □ 타키둔(タキドウン) □ 테둔(テ-ドウン)의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의 지명으로 됨(한국농촌건축학회, 2006 일본의 농촌과 건축, 2006, p.74., 2006年度 日本□韓國 農村建築□計劃研究交流會, 池ノ上眞- (九州大學), 竹富島に おける 文化遺産 マネジメントツ-リズムの 關係構築', 2006年度 日本□韓國 農村建築□計劃研究交流會, 2006.7.2, p.46.)

6) 池ノ上眞- (九州大學), 竹富島に おける 文化遺産 マネジメントツ-リズムの 關係構築', 2006年度 日本□韓國 農村建築□計劃研究交流會, 2006.7.2, p.42.)

7) 1971년 이시카케섬 중심으로 진도 7.4ㅣ 의 지진이 일어나 80m의 쯔나미가 마을 전체를 덮친 경험이 있다.

8) 竹富町民憲章(1986.3.31), 竹富公民館.

고 마을이 활성화되면서 최근, 마을 만들기의 주민참여와 정주환경을 찾기 위하여 도시로 갔던 젊은 층들이 정주지인 마을로 U턴하는 현상이 두드러져 아동수가 증가하고 있다. 마을 내 竹富初中學校에서도 일반교실의 증설을 요청할 정도이나[9], 타케토미마을의 인구구성에는 문제가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남자들이 결혼할 상대가 부재하다는 것은 마을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일 것이다.

3. 타케토미마을의 전통적 경관요소의 보존과 활용

3.1 역사문화경관 요소

(1) 유형의 역사문화재

타케토미마을을 가장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전통적 유형문화재로는 전통가옥, 담장, 마을길 등으로 섬 자체가 문화재로 보존되고 있어 마을 어디를 가나 전통적 흔적을 밟아 볼 수 있다. 그림1은 마을의 역사문화경관요소를 정리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옛 마을길<1>로부터 전통음악과 춤 공연<12>까지 열거하였고 있다. 과거의 흔적들을 보존하고 현재의 젊은이와 후대들에게 교육의 장소요, 교재로 사용하고, 이를 마을의 역사문화경관으로 활용하는 것은 마을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자동차의 통행과 현대적 삶의 기능을 담기 위하여 마을길이 정비되었고, 지붕이 개량되는 등 현대화과정이 있었으나 마을의 전통적 요소를 기반으로 1977년 傳統的建造物群으로 마찌나미(町並み) 보존지구로 지정받아 현재, 마을경관의 원형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마을의 근대화과정의 산물들인 작두우물<2>, 수도기념탑<3>, 마을고가주조 및 계몽대석비 등도 역사문화의 흔적으로 보존하고 해당지에 역사적 장소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입간판을 설치하고 설명을 가하는 등 역사성이 있는 것들이 비록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고 역사문화경관요소로 담고자 하는 노력을 찾아 볼 수 있다.

마을초입경계목<10>은 원래 마을 초입 자리에 옛 고목과 바위가 있었으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갈래 길을 내면서 말라죽게 되었고, 그로 인해 경계벽에 석감당(石敢當)을 새겨 넣어 액운을 비켜나가게 하였다. 석감당은 골목마다 담장에 새겨둠으로써 길함을 소망하는 민간신앙을 반영하고 있다. 현재 보는 나무는 고사된 나무를 제거하고 새로 심은 나무이다.

(2) 무형의 역사문화재

타케토미마을의 무형문화재로는 농사와 관련된 축제와 전통음악 및 전통춤으로 대별할 수 있으며, 자연의 소재로 만든 직물염직과 독특한 말씨 등도 중요한 마을의 무형의 자산으로 여겨 재현하고 있다. 그림1의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 전통악기의 연주전수[10]라든가, <12>의 민족무용 마미도(民族舞踊「マミドー」の誕生地)[11]공연 등을 통해서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마을의 전통음악과 춤의 맥을 이어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무형의 마을자산은 현대의 스피드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대도시의 젊은이들에게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도시로부터의 방문객들이 끊임없이 찾아오도록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일본전통타악기<8>은 우리나라 사물놀이악기와 매우 흡사한 형태를 갖고 있다. 아마도 과거에 우리 민족과도 문화교류가 활발하였음을 추측케 하는 하나의 단서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전통현악기<8>로써 뱀의 가죽으로 만든 샤미센(三味線)은 3개의 줄을 튕겨 연주하게 되는데, 꽹과리로 반주하여 만들어내는 전통음률은 마치 남방의 자유로운 음계의 선율을 감지하게 하는 동시에 북방의 전통 타악기선율을 혼합한 느낌을 받게 한다. 이와 같이 마을의 방문객들에게 주민 스스로가 참여하여 무형의 전통미를 제공하는 방식의 무형자산의 활용가치는 지역의 전통문화의 유지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례로 판단된다.

<1> 옛 마을길, <2> 작두우물, <3> 수도기념탑, <4> 전통돌담, <5> 거석, <6> 전통민구관, <7> 쟁기와 베틀, <8> 전통악기연주장면(타악기와 현악기), <9> 옛 우물, <10> 마을초입경계목, <11> 우타끼, <12> 전통음악과 춤 공연.

그림1. 역사문화경관 요소

9) 아동학생수가 '03년도에 과거 최소인 18인이었지만 '04년도는 28인으로 급증함(八重山每日新聞, 10월 8일, 2004. 4면).

10) 전통악보 月めかしやー節': 四五四五五 四五五五 五五五 □ 四五四五五 四□□□, 봉선화의 노래': 손에 물이들 듯, 부모님의 전해주는 말씀을 마음속에 담는다. 북극성을 중심으로 별이 돌듯이 부모님은 북극성처럼 자식을 바라보며 생활한다(촌장 소유 악보사본 중).

11) http://www.napcoti.com/culture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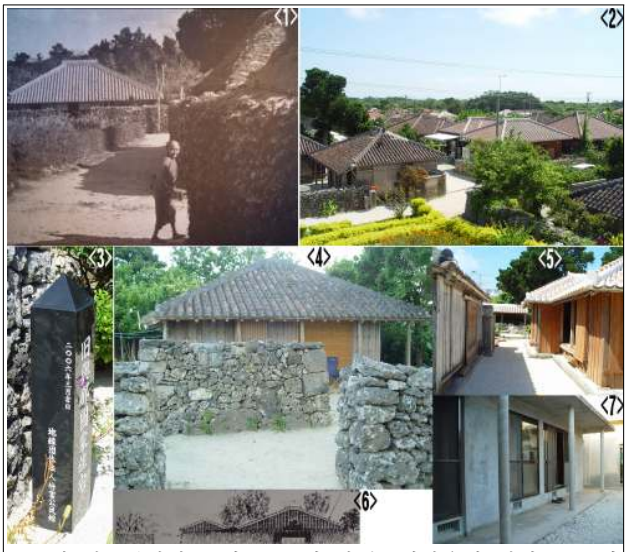
3.2 민가 및 건축물 요소

(1) 민가와 공공건축물의 마을경관 조성

그림2는 전통민가와 관련된 마을경관요소를 옛 전통민가와 돌담<1>으로부터 전통민가의 변형사례<7>까지 정리하여 제시한 것이며,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민가의 배치는 농가형식으로 남향배치로써 전정을 가지며, 안채을 중심으로 좌측에 부속사 및 화장실을 배치하는 간단한 배치방식을 취한다. 이는 타케토미마을의 마을경관을 특징짓는 중요한 요소로써, 전통민가와 민가를 구성하는 전통적 요소로써 붉은 기와지붕, 부적과 같은 시사(獅子像, シーサー), 석회암의 석담, 화초정원, 그리고 빈분(續粉), 후꾸기(福木)의 가로수 및 산호마을길 등은 지금까지도 마을의 전통적인 모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12].

따라서 민가의 보존은 마을경관에 매우 중요한 경관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민가보존과 활용을 위한 개축작업 시 민가마다 갖는 석담 안쪽으로 사계절을 음미할 수 있도록 화초를 심어 남국특유의 분위기를 자아내도록 하고, 옛 기와는 재활용하게 하였다. 붉은 기와는 마을 전체의 경관을 창출하는 가장 중요한 색채이므로 민가마다 통일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13]. 민가를 둘러싼 마을길은 현재, 도로 밑으로 상하수도가 설치되어 있어 마을길의 통행과 미적 경관에 좋은 작용을 하고 있고, 금후, 점진적으로 전기선도 지중 매설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1>옛 전통민가와 돌담, <2>현 타케토미마을의 전경, <3>역사적 전통주택의 지정표시, <4>전형적인 민가□돌담□힌푼□후꾸기나무, <5>안채□부속사(작업공간)□화장실, <6>민가의 배치과 입면형태, <7>전통민가의 변형사례(콘크리트 기중과 몰탈마감), 산호로 포장된 마당.

그림2. 전통민가와 마을경관요소

12) 타케토미 비지터센터(竹富島ゆがふ館)내 자료, 2006.

13) 최초, 타케토미 마을 민가 지붕의 붉은 기와이엉의 사용은 1895년경이며, 이후는 태풍과 재해에 약한 새이엉지붕에서 기와지붕으로 대신하였던 것이 지금의 경관을 만들어내었다. 마을에서 연간 사용되는 기와는 약 3만장정도이며, 공공사업의 일부를 제외하고, 실제로 옛 기와로 대응하고 있다(http://www.napcoti.com/culture/kaoku.htm).

한편, 마을의 공공건축물을 건립하는데 있어서도 민가를 중요시하고 있다. 민가의 스카이라인과 형태가 공공건축물의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 마을의 마찌나미관의 설계 시 민가의 경관유지상 의도적으로 단층으로 낮게 건축하였으며, 입면형태를 민가형으로 설계하였다. 그림3과 같이 타케토미마을 비지터센터 역시 민가형의 입면형태를 취하고 있어 민가를 전통적 마을경관조성을 위해 민가를 모티브로 삼았음을 발견할 수 있다.

竹富島마찌나미館 | 비지터 센터(竹富島ゆがふ館)

그림3. 민가형의 공공건축물

(2) 민가의 공간구성

단위주거의 경우 대지의 경계를 돌담으로 둘러싸고, 민가의 입구는 힌푼(ひんぷん, 차면담)을 설치하여 안채가 사람에게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전이공간을 만들고 있다[14]. 마당 정면으로 안채가 배치되며, 좌측으로 변소, 작업장 등의 위생 및 작업공간을 배치한다. 뒤뜰은 별다른 시설이 없이 뒷마당공간과 대지경계로 후꾸기 나무를 뒷면 좌우로 심어 주택을 보호하며 그늘을 형성하게 한다. 이러한 주택의 배치형태는 오키나와 주거의 특징으로 아열대 해양기후와 풍토를 그대로 담고, 주거의 내부공간을 밖으로 직접 노출하지 않도록 하는 의식과 마(魔)가 주거공간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하고(힌푼), 막아주는(씨자) 주술적 사상들이 민가구성의 관념체계로 형식화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4는 타케토미마을 大浜荘 민가를 사례조사한 것으로 전형적인 평면구성을 나타내고 있다.

14) 최근, 민박집을 중심으로 이를 제거하여 동선의 편리성을 고려하는 경우도 발생하지만 석조힌푼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며, 목재힌푼도 찾아볼 수 있다.
풍압을 줄이는 기능과 내외부공간 사이의 공간적 영역감을 형성하는 기능도 담당한다(곽혜영 외2인, 제주(濟州)와 오키나와(沖繩)지역 민가의 건축적 특성비교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제23권 제5호(통권223호), p.16, 2007.5.).

석재 힌푼 | 목재 힌푼(이동식)

<1> 전정(앞마당에 흰푼이 없는 경우), <2> 개량된 콘크리트기둥, <3> 마을길과 돌담, <4> 부속사(식당의 식품창고), <5> 안채와 부속사□화장실, <6> 대지경계와 화단, <7> 2번좌(민박시 전통적 다다미방으로 사용), <8> 1번좌(, 다다미방, 가변구조-확장), <9> 마루, <10> 3번좌의 후방.

그림4. 타케토미 大浜荘 民家의 평면과 내□외부공간

방형에 가까운 안채의 평면구성과 완경사의 지붕입면 형태를 갖는 민가의 평면은 『다다미방(一番座, 二番座, 三番座) + 도코노마(床の間)와 불단 + 후방(一番裏座, 三番裏座) + 주부가사실 + 마루(縁側) + 창고』 형식으로 요약할 수 있다. 외부공간에 있어서는 안채를 보호하고 경계를 그어주는 흰푼과 돌담을 설치하고, 좌측에 작업실과 부엌과 식당, 화장실을 배치하며, 뒷마당과 우측에는 후꾸기나무를 식재하는 전통적 주거양식을 고착화하였는데 이는 明治, 大正, 昭和 초기경의 생활양식을 반영하고 있다[15].이하 부위별로 간략히 실의 용도와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8>의 一番座는 방 중에서 가장 큰 방이며, 90cm X 180cm규격의 다다미 6장내지 8장을 깐 다다미방으로 약 9.72㎡ ~ 12.96㎡(2.9 ~ 3.9坪)규모이다. 주로 주간에는 접객공간으로 손님이 이용하지만 야간에는 호주의 침실로 겸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방의 윗목에는 도코노마와 불단을 설치한다. 또한 집안의 애경사시에 손님의 방으로 사용되며, 특히 결혼식 등의 경사 시는 이곳을 의례공간으로 사용하고, 손님이 많을 경우 一番座와 二番座를 개방하여 사용한다.

<7>의 二番座는 주거생활의 중심이 되는 방이다. 주로 식사와 가족단란의 공간으로 사용되는 쉼의 공간이다. 장례시에 이용되는 방이기도 하다.

<7>의 二番座와 <8>의 一番座는 칸막이로 미서기문이 설치되어 있어 경우에 따라 개방 가능한 융통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다. 평면에 나타난 三番座는 노인방이다. 노인방 앞에는 주부의 가사공간이 배치되며, 바로 후면으로는 창고가 설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一番座와 二番座의 후방에는 一番裏座와 三番裏座를 배치하여 집안의 귀중품, 서류 및 의류, 곡물 등을 수납하는 공간으로 사용하며, 자녀가 있을 경우는 자녀방으로도 활용된다[16].

그림4의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취사장, 화장실, 목욕실은 별동형의 형태를 취하며, 안채의 서쪽과 북쪽에 배치된다. <9>와 같이 현관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손님은 一番座로, 주인은 一番座 전면의 마루에서 들어가도록 구분하고 있다.

한편, 마당 앞 흰푼의 역할은 현관이 없는 안채의 프라이버시를 다소 존중해주고 있다. 따라서 마을 내 모든 민가 입구에는 거의 흰푼이 설치되었으나 몇몇 민가에서 흰푼을 제거한 사례가 발견되었다. 예를 들어 大浜荘 民家는 현재, 민박집으로 변용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과 자전거출입 등의 통행에 편리함을 주기 위해 이를 제거한 경우로 조사되었다.

3.3 마을환경디자인 요소

<표3>은 타케토미마을의 대표적인 환경물 디자인의 종류와 세부설명이며, 그림5는 실제 이미지와 내용들 사례로 들어 정리한 것이다. 각각의 요소별로 디자인의 특징이 잘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그 내용을 간략히 예를 들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마을 내 죽의 자(竹の子)', 願壽屋' 등의 가게들은 마을지도를 활용하고 있다. <1>□<2>와 같이 마을지도의 원형을 응용하여 수작업으로 가게명과 위치를 이미지화하고 상세히 설명하

15) 加藤智泉 外 4人, 住居 平面의 變容過程에 關한 類型的 考察-南西諸島의 住居의 變容形態에 關한 硏究(1)', 日本建築學會大會學術講演梗概集, 1995年 8月, p.5. 또한 일본 타케토미 비지터 센터(유가후관) 비치자료인 竹富島의 民家'를 토대로 이와 유사평면을 갖는 大浜荘 民家(民泊집으로 운영중)를 사례 조사한 것임.

16) 加藤智泉 外 4人, 前揭論文, p.5.

므로 흥미 있게 그려내고 있다.

표 3. 마을 환경물 디자인의 종류

환경디자인 종 류	세부설명
마을지도	□마을지도는 마을원형을 토대로 죽의 자(竹の子)', 願壽屋' 등의 위치 소개. □마을길의 구조, 민박집의 위치, 자전거대여소와 공공시설물의 위치, 민가배치 작성. □수기로 상세히 설명. 흥미유발
자전거지도 (대여소포함)	□자전거 코스, 숙박시설의 위치, 식당 등과 함께 명기. □글씨체 선택과 컴퓨터그래픽스의 간결함유지. □손으로 그린 마을지도와 동일계 색상을 사용함. 통일성고려.
안내판	□개별 입간판형식과 종합 안내 표지판으로 이원화함. □전통민가형 안내판: 주택의 붉은 기와와 지붕형태□친환경재료 사용 전통적 이미지. 재료가 갖는 갈색과 흰 바탕에 검정 글씨. □크기, 색채, 글자체, 높이 등을 규정.
입간판	□글씨체 통일, 예) 茶屋 たかにゃ' 등. □민박집 표시, 찻집 간판, 음식 메뉴판 등 입간판의 종류 다양함. □수공예디자인, 컴퓨터그래픽 □주조색: 흰색□갈색(재료), 강조색: 녹색, 파랑색, 빨강색.
스트리트퍼니처디자인	□종류: 자판기, 우체통, 전주, 가로등 등. □돌담과 마을안길에서 돌출되거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마을경관을 고려하여 조화롭게 설치. □빨강 등 고채도를 사용 무채색의 주조색 체계에서 포인트 역할을 강조하기도 함.
로고디자인	□원형에 특산품 담음. □ 竹富島 관광협회 회원증'으로 사용. □竹富島 스탬프 사용(주택과 꽃문양).

<1>마을지도(수작업), <2>마을지도(CG작업, 자전거도로상세도와 주요거점 상세표기), <3>전통민가형 안내판, <4>스트리트퍼니처디자인(담장과 자판기), <5>□<6>입간판의 종류, <7>우체통.

그림5. 마을환경디자인의 종류와 디자인

특히, <8>의 마을길 변에 설치되어야 할 자판기라든가, 우체통 등의 스트리트 퍼니처는 마을길과 돌담을 고려하여 민가의 담장선에 맞춰 삽입 혹은 담장에 면하여 돌출하지 않도록 하였다. 담장과 마을길의 선을 지켜주고 있어 마을경관을 보존하고자 한 것이다.

재료사용 및 색채계획에 있어서 붉은 기와와 목조의 민가를 배경으로 무채색계의 마을길과 돌담 등이 마을의 주조색을 이루고 있고, 안내판과 입간판 등은 형태와 재료에 있어서 민가형태와 목재를 취하여 조화를 이루도록 동일계 질감을 얻어내고 있다. 자판기나 우체통 등 일부 스트리트 퍼니처를 빨강색, 파랑색 등의 고채도색을 사용하여 무채색의 주조색 체계에서 하나의 포인트로 작용할 수 있도록 강조하기도 하였다.

4. 마을의 운영과 관리

4.1 마을의 고유한 경관을 지키기 위한 주민규약(竹富島憲章) 제정

지금으로부터 약 50년 전에 농업의 기계화와 함께 섬의 농업은 쇠퇴하고, 관광산업이 발전하며 본토 복귀 후 본토기업에 일부의 토지가 매점되었기 때문에 竹富島를 지키는 모임이 섬의 토지를 매수하도록 우쓰구미(うつぐみ)憲章'을 근간으로 한 竹富島憲章'의 초안을 작성, 그것이 지금의 마쓰나미(町竝み)보존지구로 연계되었다[17]. 이 죽부도헌장은 마을의 경관유지상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고, 주민들의 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4.2 방문객을 위한 관광가이드

단체 방문객 등 특별한 내방객들에게 마을의 전통미와 주민의 온정을 전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통타악기(마치 한국의 사물놀이악기와 같음)를 쳐서 환영하고, 환송하는 사례도 제공하고 있다. 방문객들에게 환영의 기쁨과 석별의 정을 느끼게 하여 마을에서의 체험들이 기억에 오

17) 八重山每日新聞, 2004.10.8(金), 4面. 竹富島憲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一.보전우선의 기본개념: 竹富島를 소생시키는 마을 만들기는 우수한 문화와 아름다움의 보존을 모두 우선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다음 원칙을 준수한다.
二.아름다운 섬을 지킨다.
三.질서 있는 섬을 지킨다.
四.관광관련업자의 마음가짐: 竹富島의 수려한 아름다움, 인정넘침을 보다 양호하게 인상을 주도록 여관, 민박, 음식점 등 또한 시설, 토산품점, 운송업 등 관광관련종사자들의 규율준수.
五.섬을 살리기 위하여: 竹富島의 아름답고 양호함을 살려나가면서 주민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기 위하여 목축, 양식어업, 양잠, 약초, 염직원재료 등 일차산업의 진흥에 힘을 기울임, 전통공예를 살리고, 제사행사, 예능을 지킴.
六.외부자본으로부터 지키기 위하여: 竹富島관광은 수공예의 아름다움이 평가받음. 마을경관보존도 섬 밖의 자본이익을 위하여 쓰여 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 竹富公民館.

래 남도록 하는 방법 중의 하나인 것이다.

한편, 대부분의 일본의 체험마을이 그러하듯 타케토미 마을 역시 방문객을 위한 다양한 관광가이드 책자 및 자료, 전통주거와 자생식물이 담긴 스탬프, 마을지도, 자전거대여 등을 준비해두고 있기 때문에 방문객들이 마을을 보다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다. 방문객이 돌아 갈 때는 마을을 거쳐 외곽의 순환도로를 이용하게 하므로 마을의 부분에서 전체까지 보고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또한 마을경관의 자랑거리 중 하나인 모래 길의 보존가치를 맨발로 체험하게 하므로 5감으로 마을을 느끼게 하는 것은 타 마을에 비해 가장 특징적인 방식 중의 하나이다. 타케토미마을은 입구에 비지터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어 마을의 역사와 문화, 체험거리안내, 작품전시, 안내와 홍보 등을 종합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다. 관장이 상주하고 있고, 마을주민과 함께 NPO(Non-Politic Organization)가 협력하는 운영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4.3 민박운영의 특징

전통민가의 다다미방체험과 토속음식체험은 전통적 마을경관미를 제공하는 것과 함께 마을의 전통을 느끼게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현재, 마을에서 민박하는 가정은 여건이 허락하면 모든 가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상거래의 질서를 요구하고 있다. 즉 죽부헌장을 준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숙박은 물론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형식화되어 있다. 예를 들어 1박2일 형은 석식과 조식을 포함하고 있다. 조식에는 지역의 특산물인 조개(국)와 생선회가 곁들여져 제공되고 있으며, 식사메뉴는 타케토미마을을 후각과 미감으로 연상할 수 있도록 마을의 특산물을 중심으로 식단을 꾸미고 있다. 식사는 안채 왼쪽의 부속사(식당)에서 제공되고 있으나 식사인원수에 따라 안채의 다다미방에서 전통적 좌식형태의 식사도 요구할 수 있다.

5. 결 론

(1) 타케토미마을은 전문가와 마을주민이 전통적 문화유산의 활용과 구축조건을 찾아내어 국가로부터 마찌나미 보존지구로 인정받았고, 마을의 유□무형문화유산을 가지고 관광과 연계, 마을환경디자인과 운영관리체제를 조직화함으로 전통테마관광마을로 성장할 수 있었다.

(2) 타케토미마을은 과거 류규왕국에 속하였다가 일본에 귀속, 1895년경 일본의 근대화과정에서 개량한 붉은기와를 이용하여 전통적 마을경관 만들기에 활용한 것이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이며, 이를 관광과 연계하여 현재, 마을에 활력을 더하는 전통테마마을을 만들고 있다.

(3) 마찌나미 보존지구로써 타케토미마을의 경관조성은 기존의 역사와 문화', 전통민가와 마을기반시설', 마을환경물 디자인' 측면의 유형문화재 및 전통음악과 무용', 종자취제(축제)', 직물' 등의 무형문화재를 종합적으로 보존, 활용하고 발굴하는 전통적 마을만들기'를 시행하고 있다.

(4) 타케토미마을의 민가의 배치는 『안채+부속사□화장실』로 간단히 구성되나 안채의 평면은 『다다미방(一番座, 二番座, 三番座) + 도코노마와 불단 + 후방(一番裏座, 三番裏座) + 주부가사실 + 마루(縁側) + 창고』 형식으로 구성된다. 평면상의 특징은 다다미방으로 一番座와 二番座가 가변형구조로 되어 있어 대소사에 공간적으로 융통성 있게 대응하고 있고, 주부공간, 부부공간, 조부공간 등 위계적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

(5) 마을경관을 규정하는 물리적 요소로 오키나와 특유의 붉은색기와지붕의 민가, 민가를 둘러싼 산호석회암 담장 및 힌푼, 백색의 모래가 깔린 마을길, 사계절을 느낄 수 있는 꽃밭 등이 조화를 이루면서 마을의 특징을 나타내주고 있다. 마을환경디자인에 있어서 안내판, 입간판, 전주 등은 민가와 마을길 및 석담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민가형의 입면형태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고 있고, 자판기와 우체통 등은 강조색을 사용하여 마을길에 생동감을 주기도 하며, 글자체의 통일과 사인보드의 크기까지 규정하고 있어 체계적인 마을환경디자인을 실행하고 있다.

(6) 1977년, 타케토미마을이 마찌나미 보존지구로 지정되면서 전통문화체험을 바탕으로 한 관광으로 생활상의 변화에 따른 민가의 공간변용 및 비전통적 재료사용 등이 부분적으로 진행되었으나 竹富島憲章'을 제정하여 민박규정, 관광가이드, 주민교육과 마을경관규정 등의 제반 지침을 따르게 하므로 오키나와 현 중 가장 고유한 마을경관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참고문헌

1. 김광임 외 4인저, 농촌의 경관가치 평가와 관리 방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5.
2. 한국농촌건축학회, 2006 일본의 농촌과 건축', 2006.
3. 조원석, 열본의 역사적 건조물 보존 계획에 관한 연구', v.17 n.4, 2001.
4. 곽혜영 외2인, 제주(濟州)와 오키나와(沖繩)지역 민가의 건축적 특성비교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v.23 n.5(통권 223호), 2007.5.
5. 김란기, 전통마을 보존사업의 시행방법 연구', 한국농촌건축학회 논문집, v.6 n.3, 2004.
6. 加藤智泉 外 4人, 住居 平面의 變容過程에 關한 類型的 考察', 日本建築學會大會學術講演梗概集, 1995.
7. 池ノ上眞一 (九州大學), 竹富島における 文化遺産 マネジメントツーリズムの 關係構築', 2006年度 日本□韓國 農村建築□計劃研究交流會, 2006.
8. 池ノ眞一, 外1人, 文化遺産の マネジメンシステムの 構築條件', 日本建築學會計劃系論文集 第612號, 2007.
9. 竹富公民館, 竹富島憲章.
10. http://www.napcoti.com/culture

(接受: 2008.07.03)